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hana043@unimail.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58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충북 노인복지시설 급식지원체계 마련 시급

50인 미만 시설은 관련 법 없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시범사업은
식약처 예산 편성 문제로 '덜컹'

충북지역 노인복지시설 10곳 중 8곳 이상이 영양사가 없어 사실상 영양 관리 사각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급식소를 운영하는 도내 노인복지시설 390곳 중 331곳(84.9%)은 영양사가 없고,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59곳(15.1%)에 불과했다.

식품위생법상 100인 이상의 급식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있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관리가 취약하다.

식약처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소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급식 위생 · 안전 및 영양 관리, 노인 건강 상태,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임상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노인 · 조리원 ·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 ·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청주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자체 307개소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노인시설 원장 · 조리사 등 시설 종사자 3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2%가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종합만족도 83.3점을 기록했다.

올해 식약처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 수요조사에서는 충주 · 제천지역을 포함한 전국 23개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희망했다.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가 신규 지역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사건에 고려하지 않고 기존 7개 지역 지원사업 예산만 편성해 2021년 사업 시행을 두달 남긴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며 "2018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14.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해 소규모 시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 (단위 : 개소, %)

시·도	급식소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영양사 없는 시설		영양사 있는 시설	
총계	11,004	9,177	83.4%	1,827	16.6%
광주	1,303	1,268	97.3%	35	2.7%
대전	439	388	88.4%	51	11.6%
강원	584	506	86.6%	78	13.4%
충남	746	644	86.3%	102	13.7%
경남	873	748	85.7%	125	14.3%
충북	390	331	84.9%	59	15.1%
서울	1,270	1,077	84.8%	193	15.2%
전남	428	352	82.2%	76	17.8%
경북	648	525	81.0%	123	19.0%
경기	2,268	1,818	80.2%	450	19.8%
대구	304	238	78.3%	66	21.7%
인천	1,100	859	78.1%	241	21.9%
울산	88	63	71.6%	25	28.4%
전북	293	208	71.0%	85	29.0%
부산	164	103	62.8%	61	37.2%
제주	82	40	48.8%	42	51.2%
세종	24	9	37.5%	15	6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2019년 12월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충북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난해 종합대상 이어 2년 연속 수상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일홍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최우수상 이상 수상 지자체장 등 40여명만 참석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종합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두며 일자리 관련 사업비 2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다.

특히, 역대 최초로 충북도를 비롯해 충주시(최우수상)와 괴산군(최우수상), 청주시(특별상)까지 4개 지자체가 공동 수상함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높였다.

충북도는 민선5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일자리지향형 투자유치를 통해 지난 10년간 23만7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기업의 수출활성화 전략인 충북형 경영을 통한 수출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6.3%(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크게 견인했다.

산업단지 정주여건 및 일터개선 지원사업과 충북도 일 · 생활균형 추진단 운영 등 일자리 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상용근로자비율 58.4%(광역도 1위), 고용보험피보험자비율 49.3%(광역도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일 · 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3위(53.2점)로 지난 2017년 전국 17위(34.8점)에서 무려 14단계나 크게 상승하는 등 충북 일자리의 질적지표가 크게 상승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청년여성 일자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에 청주시 상당구에 개소한 전국 최초 청년여성일자리 플랫폼인 '청춘잡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충북청년광장, 청년위원회 등 일자리정책 청년참여 확대, 다양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충북행복결혼공제 등 청년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등 꼼꼼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해 30대 고용률 78.3%(전국 1위)를 달성한 점도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로 9년째인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상하는 행사다.

충북도, 24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제24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이시종 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는 7일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인의 날(10.2.)은 경로효친 사상을 북돋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광홍) 주관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념행사와 9988행복나누미 프로그램 발표회 등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참석자도 최소화했다.

대한노인회 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가 노인복지 유공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도내(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모범노인 4명이 대표로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 날 도지사 표창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 유공자 28명은 시 · 군에서 전수한다.

이시종 도지사는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건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노인복지 현안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협의회가 주관해 기념식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만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지사 표창(13명/1개소) : 강동진(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민선(산남종합사회복지관), 김상수(청주행복네트워크), 노윤정(진천군수어통역센터), 박길현(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방희진(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서명옥(충주시장애인협의회), 연현진(별뜰), 이옥자(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이창규(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시설), 임재하(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찬연(증평군장애인복지관), ㈜금강B&F

충청북도의회의장 표창(10명) : 강성은(이하의집), 고영애(영동군장애인복지관), 김미애(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 박홍래(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박효순(음성군노인복지관), 배경자(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신숙자(충주시노인복지관), 엄주원(청주가경노인복지관), 이영자(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임수정(진천군노인복지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7명) : 권영미(음성향애원), 김하율(제천지역자활센터), 이언준(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이현중(진천시니어클럽), 임기준(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임순옥(휴림), 최슬기(뜰안지역아동센터).

충북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재개

충북도는 백신유통문제로 잠정 중단되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한다.

대상별 접종 기간은 만 13세부터 18세 중고등학생은 13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부터, 만 62세부터 69세는 26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이다.

예방접종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1,095개소)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보건소는 코로나19 문제로 방문 전에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등은 무료접종 초기 쏠림 현상과 코로나19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예방접종 도우미, 모바일앱, 전화예약 가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사업시작 시기를 달리 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자는 사업 시작일을 준수하고 사전 예약 후 내원해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교육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6회 청주시사회복지대회 개최

코로나19 예방 위해 행사 축소
사회복지 유공자 격려·표창 수여

청주시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13일 제6회 '청주시사회복지대회'를 열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제6회 청주시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수여만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복지인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청주복지대상을 비롯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 22명이 시장, 시의장, 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수상했다. 올해 청주복지대상은 24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등 헌신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된 김창수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회복지인이 긍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소통해 다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주시 '아동주거환경개선' 1호 헌정식

주거개선·가전제품 등 지원도

충주지역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대들을 위한 '아동주거환경개선' 1호 세대가 완공됐다. 아동주거환경개선 1호 세대는 새충주로타리클럽, 탄금로타리클럽,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작은사랑집수리봉사단, 한국해비타트 등의 참여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앙성면 용포리 소재 A씨 집에서는 지난달 28일 '아동주거환경개선' 1호세대 헌정식을 가졌다. 이날 헌정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이광희 한국해비타트사무총장, 박인자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 김재우 새충주로타리클럽 회장, 최선영 탄금로타리클럽회장, 박영찬 작은사랑집수리봉사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아동주거환경개선 1호세대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들 중 아동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충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굴 추천으로 진행됐다. A씨의 집은 4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집은 주거환경개선으로 벽면 방수작업, 화장실 개조, 자녀방 분리 설치 등 쾌적한 환경으로 새롭게 탈바꿈 됐다.

한국해비타트는 대상자 선정 및 새보금자리 제공하고, 새충주로타리클럽는 제공된 보금자리에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앙성면 용포리 소재 A씨 집에서'아동주거환경개선' 1호세대 헌정식을 가졌다.

청주시, 아동권리 보호 '옴부즈퍼슨' 위촉

전문가 3명 구성… 권리 보호 · 피해 구제 기능 수행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중인 청주시가 아동권리 증진 활동에 나설 옴부즈퍼슨을 위촉했다.

청주시가 7일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아동권리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침해 요인을 제거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서 위촉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노동영 변호사, 김남진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은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다.

이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책 제안, 아동정책 모니터링 등 지역 모든 아동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권리 교육, 아동참여위원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옴부즈퍼슨 제도를 적극 알리고 아동보호·권리증진을 더욱 강화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청주를 만들 예정이다.

제천시보건소 "코로나 블루 걱정마세요"

읍 · 면 취약지구 개별방문 정신건강검사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 증가로 인구밀집지역 및 읍 · 면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3일까지는 집중 정신건강검사기간으로 강저휴먼시아 아파트 주민상대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읍 · 면 취약지구를 찾아가 각 가정세대 개별방문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울증 및 자살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아 자살생각척도검사를 실시해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제공 등 도움을 줘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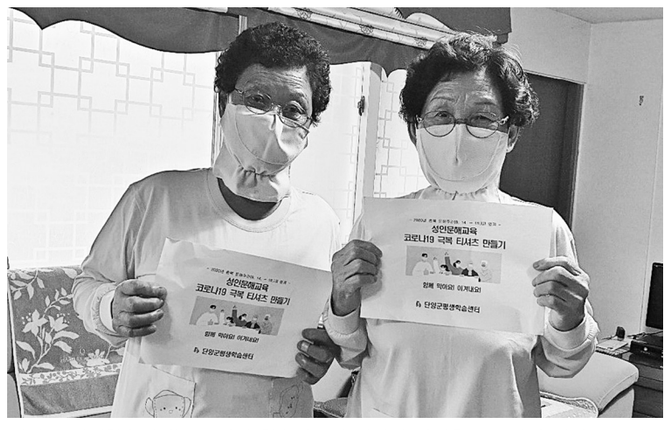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개월 이상 등록자 대상

진천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지원, 자기계발, 직업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진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월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내 만 9세부터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방문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월 5만원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에 충전된다.

군 관계자는 "도내 처음 도입한 사업인 만큼 효과적인 청소년 복지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극복 염원 티셔츠 만들었어요"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학습자들 바느질로 심리적 안정 도모



단양군 평생학습센터는 고령인 학습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티셔츠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센터장 표기동) 회원들이 2020년 충청북도 문해주간을 맞아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코로나19 극복 티셔츠'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해 교사가 학습자의 가정에 방문해 무지 티셔츠와 자투리 천을 나누어 주고 마스크가 그려진 주머니를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통해 나만의 코로나 19 극복 티셔츠를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대부분이 고령인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바느질 작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불안감과 우울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에 맞춤형 가전제품 지원

5천300만원 투입… 지역 센터 35곳 수요에 따라 전달

아동친화도시 충주시가 14일 지역아동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맞춤형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시는 예산 5천300만원을 투입,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35곳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별 수요에 따라 컴퓨터, 냉장고, 냉난방기 등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환경 변화, 생활 속 거리두기, 위생적 급식 지원 필요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돌봄 기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온라인 학습 관련 컴퓨터,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위생적인 아동 급식을 위한 냉장고 등을 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부모들의 편의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화 충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컴퓨터 등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35곳에 1천10여명의 아동이 이용중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출판 · 홍보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 춘 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음성 맹동면 '독거노인 복지사업' 추진

음성군 맹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층에 외로움의 팬데믹이 확산해 발생하는 노년층 고독사를 막기 위해 '소중한 독거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와 맹동면이장협의회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이번 한 달 동안 관내 독거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사회단체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대상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선별된 독거 어르신은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가구별 특성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 · 출입 또는 사망 신고 즉시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민원팀이 협업해 신규로 발생하는 독거 어르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해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9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품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증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옐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이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썸플레이스, 참맛식품, 라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 홈플러스익스플러스,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복대점), 바누아투, 좋은아침(복대점), 뚜레쥬르(비하계룡점), 던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비게트(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리, 한솥, 비젼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량칸타빌점, 율량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태환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뚜레쥬르 율량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겟트쌍용점, 뚜레쥬르한라점, 뚜레쥬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뚜레쥬르 금천장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궁전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뚜레쥬르 금천뉴타운, 따베오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찐빵,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뚜레쥬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덕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랩,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쥬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량점, 청주특판(주), 무와에 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신식품, 좋은아침 율량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던킨도너츠 증평점, 델리퀸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뚜,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삐오베이커리, 뚜레쥬르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매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뚜레쥬르 엘마트점, 구가네 능이보감,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후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뚜레쥬르(김홍욱), (주)벧엘육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던킨도너츠(금왕),(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뚜레쥬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찐빵, 김수향, 델리퀸(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델리퀸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뚜레쥬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자미원에프앤지,충주청과,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링게,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잎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승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빠리바게트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옥천 청소년 카페 '에너지충전소' 개소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개조
바리스타·베이커리 체험 시설 등

16일 열린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충전소' 개소식에서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커팅식을 하고 있다.

옥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인 '에너지충전소'가 16일 문을 열었다.

군은 이날 김재종 군수와 임만재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했다.

군은 여성가족부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옥천군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일부 개조해 청소년 카페를 만들었다.

에너지충전소는 57.9㎡의 공간에 커피머신, 눈꽃빙수, 과일스무디 등 바리스타 직업체험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바리스타 및 베이커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과정과 함께 청소년 자치단체(협동조합)를 구성해 카페운영을 위한 현장 코칭으로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청소년 자치단체 구성과 카페운영 역량 검토 후 청소년 협동조합에 위탁해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지승 평생학습원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직업 등 진로를 개척하는 체험 공간으로써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약
보호·지역공동체 치안 강화 협조

보은군이 보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은군은 13일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한 김기영 보은경찰서장, 임세빈 NH농협 보은군지부장, 김병호 보은한양병원 이사장 등 관내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호 지원과 공동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업무 지원과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며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혁 군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언택트 시대,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대회

옥천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임순혁)에서는 내달 20일까지 따로! 또 같이! 우리동네 20만보, 2020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는 매년 치매인식개선과 치매극복 캠페인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따로! 또 같이! 우리동네 20만보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대회 참여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 앱을 통해 옥천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워크온 가입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워크온을 검색 후 설치하고, 관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에서 옥천군치매안심센터를 검색 후 걷기대회 챌린지 시작하기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접이식 가방을 증정하고 또 행사기간동안 20만보 걷기 챌린지나 사진전송 챌린지를 달성한 군민에게는 옥천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린다.

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걷기운동 하도록 당부했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추진하지 못했다"며 "우리 옥천군이 온라인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진행해 지역주민의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극복 캠페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좌구산천문대 천체 체험 캠프 운영

증평 · 괴산 · 음성 · 진천지역 저소득층 아동 대상

증평군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천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체험캠프는 증평좌구산천문대에서 이달 24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천체체험과 VR(가상현실) · AR(증강현실)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달 24일에는 증평지역, 31일에는 괴산지역, 내달 7일에는 음성지역, 14일에는 진천지역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육기관 또는 단체는 20명을 모집해 증평좌구산천문대로 신청해야 하며 체험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좌구산자연휴양림좌구산천문대(☎043-835-4571)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천체캠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충청북도 도청이 주관하고,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센터장 박병준 교수) 지원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 독감 사전에 예방하세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위드블록 '바로체크' 시범사업 협약

대한노인회 충북 영동군지회(지회장 민병수)는 6일 지회에서 ㈜위드블록(대표이사 최윤진)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발된 '바로체크'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체인 ㈜위드블록에서 세계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집단방역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제작한 발열측정 스마트밴드 300개를 영동군에 기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박세복 영동군수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역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게 하자"며 기증받은 스마트밴드를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회와 노인복지관 담당자들이 시범적으로 활용해 널리 전파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

'바로체크'는 위기경보 플랫폼에 손목시계형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어플을 연동한 것으로, 구성원들이 스마트밴드를 착용하면 24시간 발열정보가 스마트폰 어플에 전송돼 자신이 속한 공동체(기관, 회사, 학교 등)에 공유된다.

이를 통해 집단방역관리자는 발열 상태가 의심스러운 고열발생자에게 의료기관 방문권유 등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게 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고열발생 정보를 전파해 경계심을 갖도록 돕는다.

지회는 이 시스템이 노인복지관 출입에 적용될 경우 과학적 관리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수 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선진적인 노인복지시설 활용 방법을 전국에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고령층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발열체크, 출입관리대장,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편리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구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고령 · 장애인등 정보 소외계층
스마트폰 활용 · 무인 주문 등
'디지털배움터 버스' 제공

괴산군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모습.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인 ·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급속한 전환에 따라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충청북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SLI평생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내 11개 시 · 군 · 구의 50개의 교육장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자택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비대면 사회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의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수 인원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의실내 AI스피커, 스마트패드, 키오스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로 무인주문, 말벗 서비스, 기타 생활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평생교육사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각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괴산군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배움버스'를 운영해 집합교육과 같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 디지털 배움 버스를 체험한 주민 A씨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은 농촌 지역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디지털 소외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내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식

공공기관 · 주민활동가 등 20인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증평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 자문과 지원을 위한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의 내실화와 민 · 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공공기관, 의회, 여성단체, 기업, 주민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했다.

여성친화 정책의 방향 제시와 사업기획,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과정 점검 및 개선사항 제안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 여성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날 전광식 부군수 주재로 간담회도 열어 여성친화도시 추진경과 및 분야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추진과정 점검을 통한 방향 제시 등 활발히 의견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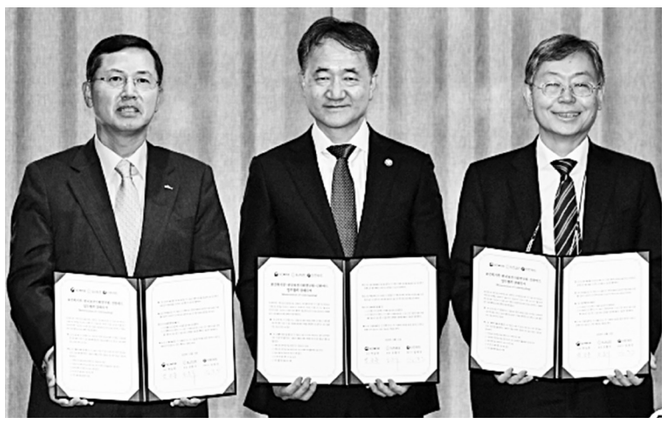
전광식 부군수는 "앞으로 조성협의체 위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증평군 여성친화사업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D.N.A로 사회보장정책 분석한다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복지부-신한카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업무 협약

민·관·연 참여 통해 1인 가구 등 특성별 사회정책 분석



보건복지부, 신한카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N.A, Data, Network, AI.) 시대의 사회보장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신한카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 개정) 이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의미가 있고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와 자영업자의 소비 · 매출 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 · 후 소비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 · 복지 · 사회서비스 등 행정자료의 연계 ·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민 · 관 · 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이하 빅데이터, big data) 지원,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 · 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다. 실무협의체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실(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 신한카드 Life Information 그룹(데이터biz팀)이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동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정부지원에 대한 소비 효과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심각'

누적 적발액 107억3천98만원… 4년 새 24배 '폭증'

이종성 의원 "매년 수억 누수… 환수 대책 마련 절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돌봄 ·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4년 새 2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약 107억3098만원이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1억5406만원, 2016년 6억8334만원, 2017년 18억5576만원, 2018년 22억2056만원, 2019년 36억6572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면 23.8배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21억5천152만원으로, 2018년 연간 적발액에 육박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73.0%)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19.6%), 발달 재활(4.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7%), 노인 돌봄 종합(0.9%),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0.1%)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을 점검하고 실시간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 신고가 늦어지는 등 사망자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는 매년 수억 원 단위로 발생한 반면 환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 사망자 재정 누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4억3478만원, 2016년 2억6699만원, 2017년 13억9788만원, 2018년 4억9577만원, 2019년 5억1032만원, 2020년 3억3704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 8개월 동안 환수된 금액은 누수액의 평균 54%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 등에 따른 복지 재정과 · 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문연 사회복지시설… 1.2평당 1명 '사용제한'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운영재개… 중대본 "방역 만전"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의 2단계에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휴관했던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도 문을 열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지난 8월 23일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관이 권고됐고,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11만4천616개 시설 중 83.1%(9만5279개)가 휴관 중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개 방침을 설명하면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시 '4㎡(1.21평)당 1명'의 이용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시간제 ·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면적별, 요일별 · 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식사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어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취약 계층에 2만4천개 공공일자리 제공

행안부, 이달부터 지자체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이달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진행중이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 · 폐업자, 특고(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이달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이제 지자체가 맡아 '공공보호체계' 가동

전담 공무원 배치 · 경찰과 사건 조사… 공적 책임 강화

이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일부 지역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맡아왔다. 이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등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 · 군 · 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 수는 196명이지만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는 각 지자체가 맡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과 시설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 확정하게 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에는 의사, 법조인, 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인력이 배치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 ·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담요원은 보호 조치가 종결된 뒤에도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다음 달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고, 내년까지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 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 · 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사회복지출판홍보 박미영 위원(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장)은 "학대업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공무원)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늘어나는 독거노인… 늘어나는 '고독사'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42.8%' 차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가 매년 7만명가량씩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7만5000명이던 독거노인은 2017년 134만6000명, 2018년 143만1000명, 2019년 15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58만9000명이다.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인데, 이중 65세 이상이 4170명(42.8%)이었다.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3년 사이 735명에서 1145명으로 55.8% 증가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됐지만, 내년에야 시행돼 아직까지 독거노인 고독사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이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은 전체 고독사의 일부로, 실제 독거노인 고독사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눔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행정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 민 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언택트시대 발맞춘 사회복지서비스 필요"

청주복지재단 '현안과 대응'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장비 지원·화상클래스 플랫폼 운영 등 인프라구축 제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료급식소 등의 중단으로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청주복지재단에 따르면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서비스 현안과 대응'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4장으로 나눠 언택트시대와 사회복지, 언택트시대 청주시 사회복지서비스 현안, 언택트시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사례, 언택트시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청주시 전략과 과제 등을 짚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난 2월 휴관 이후 전면 휴관과 부분휴관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급식과 생활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가 중단돼 취약계층 고립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위협, 직업교육훈련 중단에 따른 취업 감소, 돌봄 부담에 따른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 위험 등도 높아지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장비 지원, 화상클래스 플랫폼 운영, 청주시 차원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관련 지역사회 거점지역으로 도서관 역할 강화, 공공기관 무인정보시스템 접근성 향상 등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긴급돌봄 기관 지정 및 운영, 취약계층 대상 홈트레이닝 기능 용품 제공, IT기기 보급,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운영, 취약계층 아동 대상 비대면 체험활동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취업 지원, 비대면 형태의 일자리 발굴,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등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혜선 청주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청주시의 2020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한다"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메우고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부장관 표창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프로그램 공모전 선정
사례관리 서비스분야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인정'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0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사례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적합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기관들이 사례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표창으로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일산화탄소중독 자살예방지원사업에 이어 2년 연속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센터 관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우수사례 선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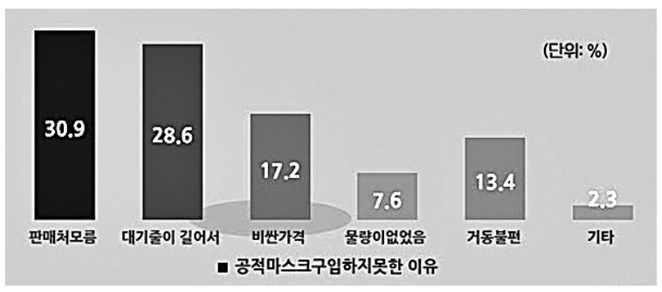
공모전은 전국 정신건강증진기관 765곳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다.

개인사례관리서비스 부문 7개, 프로그램 부문 8개를 선정해 복지부장관 표창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표창을 시상했다.

청주시 상당구 소재 15개 기관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민들기 해피아이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층 10명 중 3명 "공적마스크 판매처 몰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사결과
도내 대다수 마스크 정보 취약



충북도내 고령층 대다수가 마스크 관련 정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노인 239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정보격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5명이 공적 마스크 구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공적 마스크 구입 정보에 대해 '받은 적이 있다'는 51.5%,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48.5%로 집계됐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 한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매처 모름' 30.9%,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28.6%, '마스크 가격이 비싸서' 17.2%, '거동 불편' 13.4%, '마스크 물량이 없음' 7.6%, '기타 의견' 2.3%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 1회용 마스크 구입 경로는 '약국·마트에서 구입'이 4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 또는 이웃' 26.2%, '복지관·경로당에서 배부' 13.4%, '지방자치단체 배부' 12.5%, '기타' 4.3% 순이다.

일반 1회용 마스크를 하루 이상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최대한 아끼려고' 42.8%, '집에 마스크가 없거나 부족' 30.6%, '하루 이상 써도 문제없다는 인식' 26.6%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 ±6.33%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스크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지 못해 소외되는 노인들에게 보다 촘촘한 법·제도망을 통해 지원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아이네트워크로 행복한 사회 만들어요"

청주 15개 기관 지난 13일 '해피아이네트워크' 업무협약
지난 19일부터 3주간 지역 아동 위한 '해피아이축제'도

청주시 상당구 각급 기관들이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해피아이네트워크'의 업무협약식을 13일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체결했다.

해피아이네트워크는 지난 2008년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주시 상당구 내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네트워크며 현재 총 1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만들기에는 경희지역아동센터, 금천초등학교,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센터, 국공립 영운어린이집, 용성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원봉중학교,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일신여자중학교, 청운종학교, 청주동중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초롱이네도서관, 행복한그림심리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해피아이네트워크에서는 매년 지역의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해피아이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19일부터 3주간 비대면축제로 열린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혹한기 후원물품 지원

1만2천여명 취약계층 어르신에 의류 등 전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 부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충북광역지원기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간절기 내의 지원사업을 통해 충북 내 수행기관 23개소의 12,000여 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의 유행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요보호 취약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 제공을 통해, 혹한기 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이 외에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충북광역지원기관은 LG생활건강, 동서식품,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함께충북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물품지원과 맞춤형서비스제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취약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동군노인복지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최소화 되어 외로움이 커질 어르신들에게 배달하고 안부도 여쭈어보며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도내 임산부에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12월 15일까지 신청… 친환경농업 발전 기반 다짐 기대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며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다.

사업 신청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9월 말까지 4802명의 임산부에게 679백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했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임산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유기향)는 음성군 금왕읍 소재 오선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를 주제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일깨워주기 위해 '다르지만 같아요' 라는 테마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는 아이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익숙한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그림 찾기 등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다문화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기향 센터장은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진행하는 '청소년! 다문화에 대해 말을 걸다'는 지난 14일 오선초 5학년을 시작으로 음성군내 초·중등학교 5개 학급을 찾아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시청각 기기를 이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충북복지넷 www.043w.or.kr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누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하고

■ 보건복지부,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발표

전문화된 관리와 돌봄…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지역사회 돌봄 관리역량 강화 등 4개 영역 과제

관련 정책기반 강화… 관리공급 기반 확대 및 전문화 · 초고령사회 대응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선제적 치매 예방 · 관리,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치매 관리 공급 기반(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가 보완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 · 관리

① 치매 예방 및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 · 의원 등과 협력하여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한다.

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되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의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숲체험, 원예활동, 모래찜질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및 여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② 치매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 치매 감별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 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 원~33만 원 수준이다.

–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다만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초로기(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환자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

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과 가족부담 경감

① 치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거주자 중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 치매 예방활동, 경증 치매환자 대상 말벗, 일상생활 보조 활동을 추진한다.

②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치매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소득기준이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되어 중산층도 폭넓게 지원받게 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기타 노인 관련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방법을 대면 · 비대면으로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와 증상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와 공급 인프라 확대

① 치매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치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 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용 등을 참고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확대해 나간다.

②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하여 기초공통과정(온라인)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가 실시된다.

–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리고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나가고,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① 치매 환자 임상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료와 돌봄을 지원한다.

–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 치매 뇌은행의 자원관리를 고도화한다.

– 내년부터 치매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며,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 치매 관리에 비대면 기술이 활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②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아동 · 청소년 · 청년기 · 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인지건강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치매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 도시 ·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한다.

– 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그간의 변화 ('17.9~'20.8)

01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늘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
256개소	210개소	4개소

02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건수를 늘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10.2만건

치매안심센터 등록한 자 중 사례관리자 수 증가 추이

연도	연도별 치매안심센터 내 사례관리자 수(누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누적)	증가 추이
'18.12월	27,190명	343,857명	7.9%
'19.12월	74,267명	462,545명	16.1%
'20.8월	101,981명	506,997명	20.1%

03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설	장기요양비 부담 경감폭 확대	장기요양비 본인부담률
1.7만명		시설 20%→12%
		재가 15%→9%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기준

04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중증치매환자 의료비부담율	치매검사 건보 적용
최대 60%→10%	

05 사회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339개), 치매공공후견제	국가치매 R&D 계획 마련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 **치매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01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늘리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310개소까지
- 치매안심병원 : 22개소까지(운영수가 도입)

02 차별화된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계획(케어플랜) 수립

03 치매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서비스 제공 :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 5등급 2.5만명 +인지지원등급 1.7만명)
- 상시돌봄형 및 통합형 재가서비스
- 주거+장기요양서비스 모형 개발

04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 치매전문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05 제도를 보다 견고하게 하고 가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비대면 기술 활용 예방 · 검진 · 인지강화
- 치매 원인 · 진단 · 치료기술 개발연구(~'28)
- 치매가족휴가제 연 이용한도 : 6일→12일 ('22년 9일→'25년 12일)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광장

이기적 유전자 vs 이타적 유전자

김 준 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가, 이타적 존재인가?

이 질문을 조금 쉽게 풀어쓰면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일까 아니면 배우자, 자녀 등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인가?' 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질문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인간은 이기적 속성과 이타적 속성 모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1976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 명예교수의 이론은 여전히 생물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도킨스의 이론은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이자 기계' 정도로 요약된다.

모든 생명체가 자기 보존의 원칙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으며 유전자는 이에 맞춰 프로그램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암컷나비가 수컷나비를 선택하는 기준을 도킨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날개 좌우대칭이 완벽한 수컷나비가 암컷에게 선택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암컷나비는 날개의 좌우대칭이 좋은 수컷나비를 멋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상황을 유전자 결정론으로 해석한다면, 좌우대칭이 잘되는 수컷나비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암컷나비는 유전자에 속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는 오로지 암컷나비의 몸을 빌려 좋은 조건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만이 목적이다. 날개의 좌우대칭이 잘되는 수컷 유전자와 만나야 새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는 암컷나비로 하여금 날개가 훌륭한 나비를 보고 사랑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을 암컷나비는 죽어도 모른다. 그저 사랑이라고 느낄 뿐이다. 수컷도 마찬가지다. 수컷의 마음을 홀렸을 암컷 나비의 색깔이라든지 냄새 같은 것들 역시 고도로 계산된 유전자의 조종 일뿐이다.

반면에 영국의 동물학자 매트 리들리가 쓴 '이타적 유전자'는 이기적 유전자와 제목이 정반대의 책이다. 하지만 생명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맥락은 똑같다.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대에 남기려하기 때문이다.

리들리는 이기적인 개체가 이타적인 사회를 만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벌은 군락을 침입한 적을 향해 기꺼이 침을 날린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말이다. 개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락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일벌의 유전자는 전달되지 못하지만, 친족의 몸을 통해 유사한 유전자가 전달된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일벌은 번식을 포기하고 여왕을 위해 희생한다.

이기심은 모든 생물의 기본적 본능이다. 생명체로서 인간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이기심은 그 과정의 중심에 있고, 인간이 만든 조직도 마찬가지 속성을 갖는다.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개인의 관념과는 무관하게 이기심은 자연법칙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흔히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는, 남을 위한 희생정신과 이타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타성은 수많은 학자들이 진화생물학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역설적이게도 유전자가 이기적이기에 인간은 이타적일 수 있다.

각 유전자가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발달시킨 여러 메커니즘 가운데에는 이타적 행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과 유전에 의해 일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친척 또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개미와 벌이다.

인간의 도덕성은 진화의 산물이다. 도덕적인 개체가 더 많은 유전자를 후세에 남겼기 때문에 도덕성이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타적 유전자'는 부모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방관들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들어간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쓰레기 수집하는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이태석 신부의 삶은 인간의 이타적 유전자를 자극하고 진화시킨다.

현장의 목소리

청소년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박 선 영
제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여러분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아, 주관이 뚜렷하다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물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한사람이었지만 우리도 청소년의 시절을 겪었잖아요?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이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조심스러워 조금은 무서움반 걱정 반이었지만, 생각했던 거보다 청소년들은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어른들의 선입견으로 청소년을 대한다면 청소년들은 그만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 같다고 생각한다.

각 시도마다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능을 찾아주기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는 청소년, 여러 가지 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 행사 기획과 진행을 준비하는 청소년 등 학업과 병행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며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신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성인만큼이나 청소년들도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인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다면 청소년은 자신의 숨은 재능 찾기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도 가끔 거리에서 청소년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구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보면 실력이 정말로 좋은 친구도 있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친구도 있다.

공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접했을 때 '아이구 시끄러워. 잘 하지도 못하는데 왜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러나' 등 청소년들의 공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야유와 비난을 하는 성인들이 간혹 있지만, 성인들이 함성과 박수로 호응해 주고 따뜻한 격려를 해 준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힘을 얻어 자신의 재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은 어른들의 몫인 거 같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 준다면 추후에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 자신의 선택보다 부모의 선택에 의해 아직까지도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청소년들과 부모의 대화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면 우리 자녀인 청소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어떤 심정인지 고민도 들을 수 있다. 학업에 바빠서, 먹고 살기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서로가 대화하는 시간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친구보다 부모를 더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다가와주길 바란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어서 거칠고 무뚝뚝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기다리고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친구처럼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갈수록 사랑한다는 말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며 다 큰 청소년에게 쑥스럽다고 생각되어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 같다.

하지만 첫 말 한마디가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다보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 같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이 힘든 법.

우리 자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청소년들의 재능에 대해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복지포럼

충북 사회복지의 미래비전 수립은 가능할까?

최 은 희
충북 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은 충북연구원이 지역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획을 하였으나 비대면의 시간으로 행사는 일부 생략하였다. 현재 진행하는 것은 30년 동안 충북의 각 분야(경제, 문화, 복지 등)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는 일상성 · 전문성 중심에서 융합 · 유연성 · 창의성 · 다양성 중심으로, 생산 · 공급 · 근로 중심에서 소비 · 수요 · 여가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물질 · 자원 · 소유 중심에서 정보 · 관계 · 공유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김동휘, 2017; 최현수, 오미애, 2017)고 진단한다.

이러한 미래 변화를 준비하며 충북이라는 공간 위에, 충북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성찰을 발판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자. 기술혁명에 따른 양극화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존 고용관계가 해체되어 사회보험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사회보장의 틀을 변화시키기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투자와 창의적인 인력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도전을 지지해주는 두터운 사회보호가 우선 실천되어야 한다(최영준 외, 2018).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대상에 사회복지사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술혁명으로 사회가 변화될수록 보다 인간적인 것,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정책은 생명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관심을 기울이자. 충북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은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한다. 농촌지역은 고령화율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대중교통으로 읍내 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역거점 데이터센터를 통한 의료정보교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지역의 1차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형병원과 지역 클리닉의 의료정보연계 및 커뮤니티 케어 도입에 따른 지역 주치의 중심의 노인건강관리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충북 청소년복지를 확대하자. 인적자원의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가장 우선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가장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은 아동과 청년을 잇는 허리이자, 미래 인적자원의 핵심이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기투자를 강화함으로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동안 아동기에 대한 투자는 보편성을 띠며 변화를 거듭했다. 이제 청소년기에 집중해야 한다. 수련활동, 정책참여, 문화체험, 진로설계 등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에 대한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인구유출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미래 충북을 위해 현재의 청소년복지는 더없이 중요하다.

넷째, 충북 사회복지만의 미래비전을 설정하자. '충북 미래비전 2040' 계획은 충북도정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전 분야를 담기에 한계가 있고, '충청북도종합계획'도 공간 중심의 계획이라 사회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충북은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도출하는 논의를 전개한 적이 없다. 충북이 복지사회에 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충북은 어떤 복지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지? 등 철학적인 물음을 던진 적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물음에서 출발한 사회복지만의 미래비전을 설정을 해보며 어떨까한다. 지금은 혁신, 창의, 실험, 도발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충북의 복지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 30년이 어떨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현재 최고이자 최선인 충북의 사회복지를 설계하고 실행하자.

이 달의 법률상식

채무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금지채권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월50만원 정도를 수급비를 받고 있고, 보증금 1500만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몇 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금 1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달 수급비와 퇴직금이 보관되어 있던 통장이 압류되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혹시 제 전세보증금 1500만원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를 당하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 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등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청주의 경우 1700만원 이하의 보증금) ④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채권 등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50만원의 수급비는 ①의 부양료, 퇴직금의 1/2인 250만원은 ② 의 급여채권의 1/2,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만원은 ③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전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설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면 최소 3주 이내에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압류가 해제되어 자유로이 통장에 있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사전에 압류방지 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절대 금지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재가장애인 재택고용사업
■ 신청대상:
–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 19세(고등학교졸업예정자)이상
■ 장소:
–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한울타리 작업장
– 재가장애인 가정 내
■ 모집기간: 상시모집(※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043-252-9720)
■ 참고: www.woorinet.or.kr

[사피엔스4.0]국내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사다리아저씨 모집안내
■ 신청자격: 만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모집인원: 연간 5명(연차 별 확대 예정)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협의 후 확정)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apiens.or.kr)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ocean@sapiens.or.kr) 제출
■ 문의: 사피엔스4.0(070-7005-6077)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043) 267-5835, 285-5835
■ 참고: http://www.woorideul.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동문 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https://www.bokji.net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여송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 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행정업무 보조
관리센터 :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288-9601

▶ 밑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835-4288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845-4544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260-8200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288-306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남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70-4149-234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857-5960

▶ 재활프로그램(공예 등) 보조
관리센터 :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267-4590

▶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 충북남부아동전문기관
활동기간 : 10.1 ~ 11.30
전화번호 : 043-731-368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신문봉사단, 신문 발행 봉사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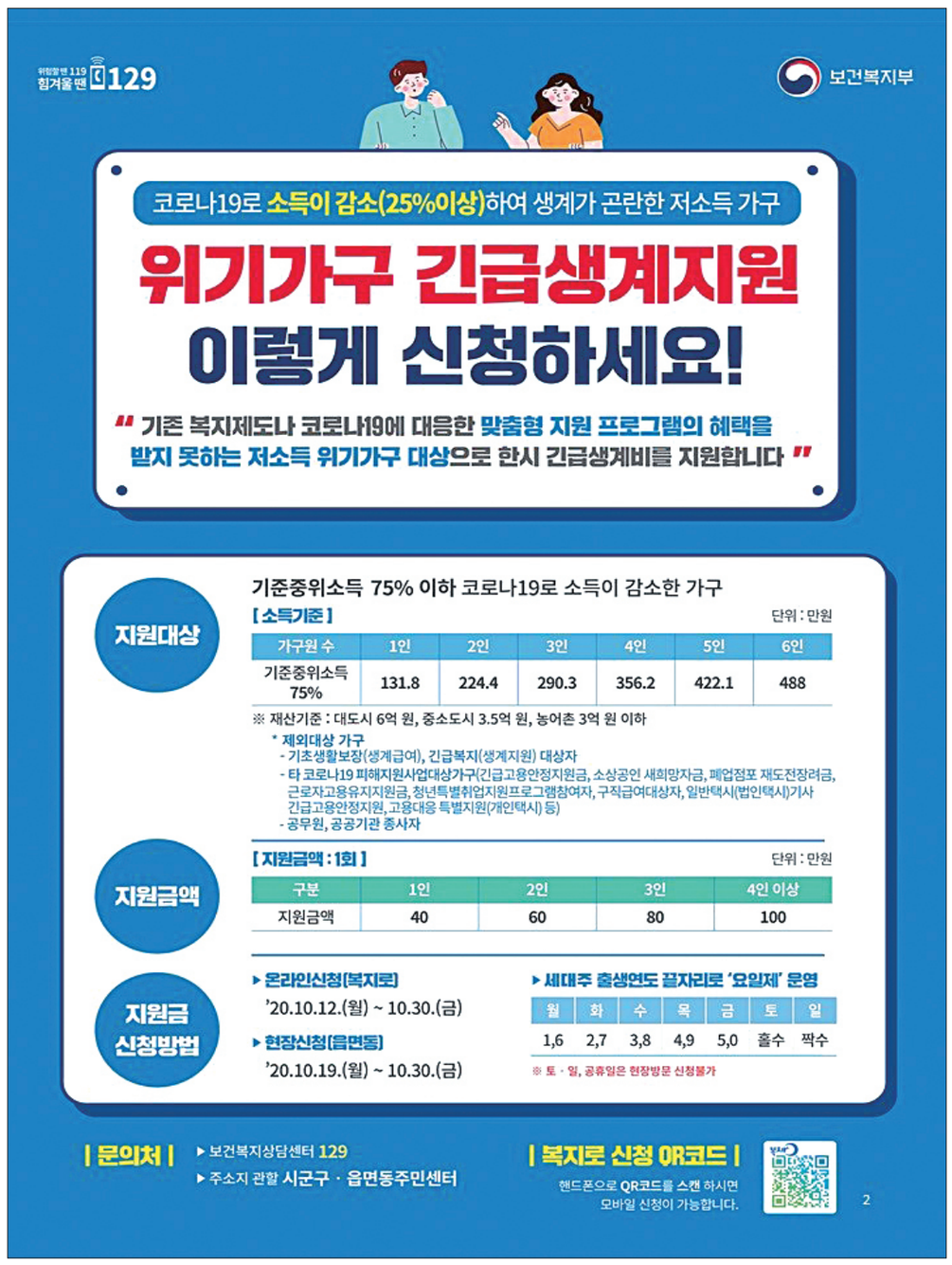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은 지난 9월 28일 청주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신문 봉사를 진행했다.

신문봉사단은 201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희일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충북사회복지신문은 도내의 사회복지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달매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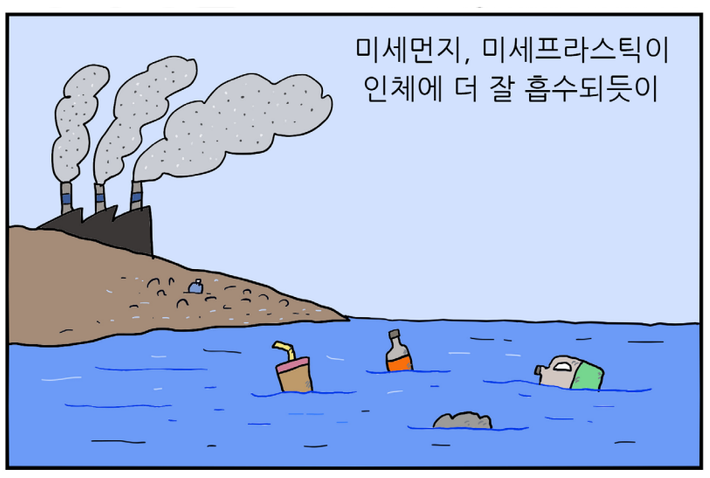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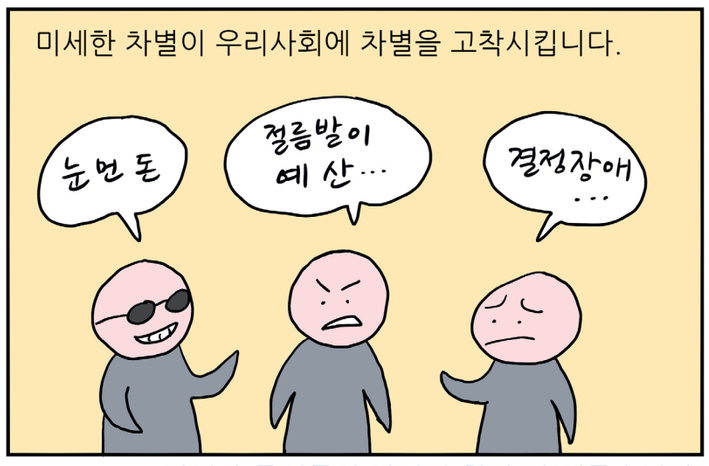


복/지/만/평

미세차별

이창신 www.bokmani.com





미세한 문제들이 쌓이면 훨씬 더 해롭습니다.